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6 제1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 777 • 2013, 778 • 7427 FAX 02 • 778 • 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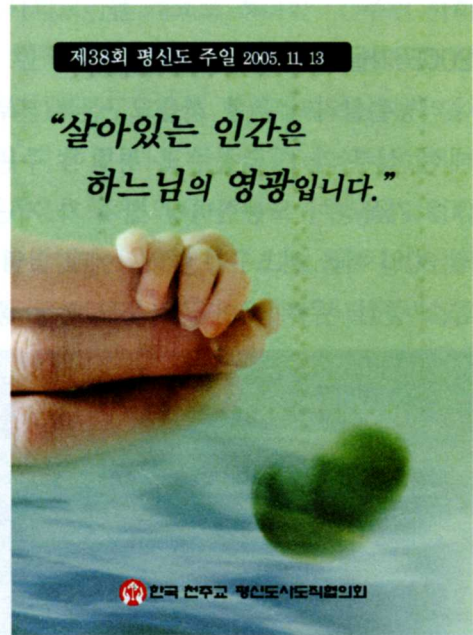
발행일 : 2006. 2. 18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5년 하반기 사업내용

- 제38회 평신도주일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13일 제 38회 평신도 주일을 맞아 강론자료와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고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의 강론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연구와 관련 "인간배아는 존엄한 인간 생명의 시작이므로 결코 실험



☐ 실는 순서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 ▣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 ▣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실의 연구 조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평협은 "배아가 아닌 태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교회가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협은 또한 "생명수호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해나가야 한다"며 "인간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결코 훼손 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임을 자녀들에게 일깨워달라고 강론자료에서 강조했다.

- 2005 가을걷이 도·농한마당 잔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서울교구본부(본부장 조대현 신부)와 한국천주교 평협이 주관한 '2005 가을걷이 도농한마당 잔치'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열려 농촌공소 중심 '우리농 마을'과 도시분당 중심



'생활공동체' 확산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해 수확한 농산물을 봉헌하는 추수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온 생산자 공동체와 도시생활자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격려한 이날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쌀은 우리 생명"이라며 자신부터 쌀 소비와 우리농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한해 농사를 잘 지

어준 농민께 감사하며 함께 희망을 일궈가자고 격려했다. 미사 후 마련된 판매마당에서는 생산자 농민이 직접 올라와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전통놀이마당 등을 통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2005년 3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

한국평협은 지난해 11월 26, 27일 서울대교구 평협 주관으로 제3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14개 교구 평협 회장단(군종평협 불참), 7개 상임단체장 중 3명(여성협의회, 레지



오 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광주 세나투스)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 한국평협 분과위원장, 서울 평협 임원 등 7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상임위원회의는 첫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평신도사도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전원 참석했으며, 둘째 날 본회의에서 예산 항목간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 프랑스코회 순례단을 위한 만찬

한국평협은 103위 한국성인 중 앙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등 세 분 순교성인의 고향인 엑상 프로방스 교구 파이드 대주교 등 프랑스코회 순례단을 맞아 10월 26일 저녁 명동성당 별관에서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서

